

No. 2013-17

일본 경제 동향

(Japan Weekly Economic Digest)

2013. 04. 15

- ① 일본경제지표
- ② 주간경제이슈
: 일본의 경기 진단
- ③ 경제정책동향
- ④ 일본기업동향
- ⑤ 한국관련워치

1 일본경제지표

□ 주간 상황지표

- 엔화환율 : 주식 및 금시장의 하락, 보스턴 폭발사건 등으로 인한 엔화 수요 증가로 지난주 보다 강세
- 장기금리 : 주식시장의 하락을 배경으로, 안전자산으로서의 국채에 대한 수요 증가로 하락세

구 분	4.15(월)	4.16(화)	4.17(수)	4.18(목)	4.19(금)
엔화의 대미달러화 환율(미달러당)	98.64	97.05	98.30	97.83	98.27
엔화의 대원화 환율(100엔당)	1,149.67	1,158.35	1,146.25	1,136.61	1,141.69
닛케이평균주가(종가)	13,275.66	13,221.44	13,382.89	13,220.07	13,316.48
장기금리(10년물 국채금리, 연리 %)	0.640	0.590	0.590	0.560	0.585

□ 주요 거시경제지표

- 2012년도 수출은 ▲2.1%, 수입은 3.4% 증가, 무역수지는 8.2조 엔 적자로 전년도보다 적자폭 확대
 - * 對한국 수출 4.5%, 수입은 0.2% 감소, 무역수지는 16.9천억 엔 흑자
- 2013년 3월중 수출과 수입은 전월대비 각각 18.9%, 8.2% 증가
 - * 對한국 수출은 전월대비 22.6%나 증가한 반면, 對한국 수입은 3.8% 감소

구분	2011	2012	2012			2013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실질GDP증가율(연율,%)	0.3	(2.0)	0.2			...		
수출(천억엔)	653	639(637)	51	50	53	48	53	63
수입(천억엔)	697	721(707)	57	59	59	64	61	66
對한국 수출	52.1	49.7(49.1)	3.94	3.93	4.35	4.01	4.25	5.21
對한국 수입	32.9	32.8(32.4)	2.70	2.82	2.84	3.12	2.92	2.81
직접투자(억달러)	(1,157)	(1,223)	339			...		
對한국 투자	(24)	(40)	9.4			...		
소비자물가(%)	0.0	(0.0)	0.0	▲0.3	▲0.1	▲0.3	0.1	...
실업율(%)	4.5	(4.4)	4.2	4.2	4.3	4.2	4.3	...
경상수지(천억엔)	76.2	(47)	3.8	▲2.2	▲2.6	▲3.6	6.4	...
엔화 對미달러	79.1	82.9(80.1)	79	80.9	83.6	89.2	93.2	94.8
환율 對원화(100엔)	(1,391)	(1,413)	1,401	1,344	1,288	1,197	1,166	1,161
외환준비(기말, 천억달러)	12.9	12.5(12.7)	12.7	12.7	12.7	12.7	12.6	12.5
국채금리(10년, 연리%)	0.985	0.560	0.775	0.700	0.795	0.740	0.665	0.560

주1) ()는 역년(1~12월)기준

2) 소비자물가, 실업률, 환율, 국채금리는 기간평균, 자료: 일본경제신문, 재무성, 한국은행

□ 주요 보고서 워칭 사이트(report watching site)

- 『정권교체 이후 중국 : 일중관계의 장래와 일본기업의 대응』 환일본해경제교류센터, 4월17일
*출처:<http://www.near21.jp/kan/center/publication/journal/90/902.pdf>
- 『일본의 중장기산업구조변화 조사사업 보고서』 경제산업연구소, 4월18일
*출처:http://www.meti.go.jp/meti_lib/report/2012fy/E002276.pdf

② 주간경제이슈 : 일본의 경기 진단

□ 금융완화의 소비증대효과 가시화

- 엔저·고주가를 배경으로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고 있고 기업들은 생산을 늘리는 등 일본의 경기부양이 시작되고 있음
 - 금융완화, 재정지출, 성장전략을 축으로 하는 아베노믹스로 성장 동력이 강화 될 것으로 투자자들은 기대하고 있음
- 그러나 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고용이나 투자를 늘리는데 아직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디플레 탈피를 위해 넘어야할 장애물이 적지 않다는 판단
- 작년 4/4분기 실질 경제성장율이 연율 0.2%로 3분기 만에 플러스로 반전된데 이어, 금년 1/4분기에는 2%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음
 - IMF도 금융완화효과 등으로 일본의 2013년도 경제성장율을 1.6%로 0.4%포인트 상향조정
- 고주가에 힘입어 무엇보다도 소비심리가 살아나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 화살인 금융완화가 소비자들의 회복기대를 자극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엔저의 효과도 가시화되기 시작하여 엔고 기간 중에는 일본제품이 비싸다고 구입하기를 꺼려했던 해외 구매자들도 엔저 하에서 재평가하기 시작

□ 엔저의 수출증대효과가 본격화되려면 시간 지나야

- 그러나 엔저가 수출을 본격적으로 끌어 올리려면 조금 더 시간이 경과해야 한다는 지적임
 - 수출기업들이 외화표시 가격을 인하하더라도 실제로 판매가 증가하는 것은 이른바 J커브 효과로 6개월~1년 정도 걸리나, 반면 원유 등 수입품은 엔화표시 가격이 바로 인상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무역수지가 악화
 - 재무성이 발표한 무역통계에 의하면 금년 3월 수출액은 6조 2,713억엔으로 2개월 만에 증가 하였으나, 엔화환산 외화표시 수출가격이 엔저에 의해 상승한 것이 그 원인이며 수출 물량은 계속 감소
- 최근 경기회복은 아베노믹스 효과가 세계경제의 회복과 겹친 행운도 있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미국경제로 주택시장이 회복되고 있고 자동차 등 소비도 확대되고 있음

- 또, 작년 가을 반일 운동의 영향이 가시지 않은 중국도 일부에서 해빙조짐이 보이기 시작
- 앞으로 10조엔 규모의 긴급경제대책이 본격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소비가 더욱 활성화되고 수출과 공공사업이 이를 떠받쳐주면서 디플레의 탈출구를 향해 일본경제의 호순환 엔진이 시동되고 있음

□ 경기의 지속력은 여전히 우려

-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엔저·고주가의 효과가 떨어지기 전에 기업들이 움직여 주어야 한다는 지적임
- 경기가 확실하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기업이 설비나 인력투자를 늘려, 임금이 인상되고 소비가 다시 증가하는 호순환 구조가 필요
- 민간경제연구소의 예측으로는 성장률이 2013년도에 2.3%로 상승된 후에 소비세 증세가 시작되는 2014년 4~6월에는 연율 마이너스 5%정도로 떨어짐
- 기업들이 경기회복이 일시적일지도 모른다고 경계하여 투자나 고용을 보류, 내부유보 자금이 270조엔에 달함
- 일본정부도 월례경제보고에서 3개월 연속 경기판단을 상향 수정해왔는데, 4월 월례경제보고에서는 「일부 약세요소가 남아있기는 하나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식으로 지난 3월의 경기판단을 견지
- 경기부양이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디플레로 위축된 심리를 전향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임
- 새로운 성장분야 개척,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는 이른바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이 아베노믹스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닛케이신문은 전하고 있음

□ 현시점에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진단

- 금융완화 효과는 재정지출확대 효과와 맞물려 엔저·고주가·기업경영실적 개선→ 소비증대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엔저→ 수출 물량증가 효과로는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현 단계에서는 기업의 경영실적 개선에 의한 내부유보 증대효과까지는 나타나고 있으나, 설비투자 증대와 임금인상 효과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음
- 그리고 중요한 성장전략 역시, 현시점에서는 중장기적인 성장기대감을 불어넣어 줄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진단

③ 경제정책동향

□ 도시 인프라 수출을 위해 관·민 합동 작전

- 신흥국의 친환경 도시조성을 목적으로 한 일본의 도시기능 수출을 위해 관·민 공동으로 나서고 있음
 - 일본정부는 러시아에 효율적인 교통망과 환경대책 등 일본의 도시 인프라 수출을 제안하고, 4월 하순 아베 총리의 러시아 방문일정에 맞추어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임
 - 요코하마시와 JICA도 필리핀 정부와 도시정비 사업을 지원하기로 합의
- 아베총리는 의료·농업·도시 3개 분야에 수백명 규모의 기업사절단을 4월 하순부터 러시아와 중동에 파견할 계획
 - 러시아는 2025년까지 모스크바의 면적을 1.5배 확대할 계획이며, 모스크바시의 교통인프라 관련 예산은 향후 5년간 총 4조 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아베 총리의 러시아 방문에 앞서 최초로 일·러 작업부회가 개최되는데, 정부 관계자 외에 히타치제작소와 일건설계 등도 참여,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
 - 러시아에서는 교통망 정비와 운영방법 제안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수주활동을 펼칠 계획인데, 쓰레기의 자원화 및 리사이클, 하수오염의 재이용 등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도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일본정부는 러시아를 계기로 중국과 인도에서도 도시 인프라 수출을 확대할 구상으로 러시아 방문 시에는 에너지 및 도시 외에 농업과 의료분야의 기업사절단도 동행, 의료기술과 일본식품의 판로확대 등을 논의할 방침임
- 도시 인프라 수출과 관련하여, 히타치 등이 중국과 인도 등에서 스마트시티 정비 관련 수주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기업에 의한 지하철 및 공업단지 정비 등의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음
 - 장래에는 도시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신흥국의 대도시를 대상으로 수출 공세를 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국가전략특구 창설 방침

- 일본정부는 4월 17일 산업경쟁력회의를 개최, 규제완화와 세제상 우대 추진 등을 골자로 한, 「국가전략특구」 창설 방침을 제시함
 -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3대 도시권을 중심으로 도시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인력·상품·자금을 유치, 경제재생의 기폭제로 삼겠다는 의도임
 - 금융완화와 재정지출 확대에 이어 아베노믹스의 3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의 한 근간으로 설정하겠다는 것
- 5월 예정인 작업부회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나, 전략특구의 근간은 외자유치와 공공인프라의 민간개방임
 - 외자유치책은 ▷ 법인세 인하 ▷ 외국인의사 수용 ▷ 해외 정상급의 학교유치 ▷ 카지노를 포함한 통합형 리조트 설치 등이 중심
 - 외국인의 근로환경을 개선, 외국기업의 아시아본부를 유치함으로써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고 소비가 활성화되는 구도도 상정하고 있음
 - 기술자 등 외국 전문 인력의 수용능력을 확대하여, 일본의 전문 인력 육성 및 기술수준 향상도 꾀하겠다는 의도
 - 민간개방과 관련해서는, 유로도로와 공립학교 등의 공공시설 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시스템을 보급함으로써, 경영개선을 기하겠다는 것도 목표중의 하나임
 - 공공직업안전소의 지방이관은 현행 특구제도 하에서 사이타마, 사가 등 2개현이 시행하고 있는데, 민간에 대한 업무개방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
- 한편, 여러 가지 장애요소를 이유로 완화할 수 없었던 규제가 많은 만큼, 풀어야 할 과제도 많음
 - 특히, 기업들이 강력히 요망하고 있는 법인세 감세 등 세제상 우대책은 부진한 세수를 더욱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재무성과의 조정에 난항이 예상
 - 또한 3대 도시권을 중심으로 특구 구상이 이루어지면 도시 간의 격차가 한층 확대되어 지방의 반발도 커질 우려가 있음

4 일본기업동향

□ 일본 제조업체들, 유럽에서 경영합리화

- 일본의 제조업 관련 대기업들이 유럽에서 인원삭감 등 경영합리화를 가속화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지역의 경기회복이 늦어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 브리지스톤은 서유럽지역 종업원의 30%에 상당하는 1,450명 정도를 구조조정
 - 스페인, 프랑스에서 총 500명의 인력조정과 설비투자를 동결하는 한편, 약 950명이 근무하는 이탈리아 공장도 폐쇄할 계획
 - 유럽의 매출액 영업이익율은 0.5%로, 북미·중남미의 약 7%에 비하여 크게 떨어짐. 향후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생산을 동유럽으로 이전할 계획
 - 혼다도 유럽의 유일 생산거점인 영국공장에서 약 1,000명을 줄임
 - 혼다는 영국공장의 정규직의 20%에 상당하는 800명을 조정하고, 계약직 종업원도 300명 정도 조정
 - 유럽지역의 15개 판매회사를 영국의 총괄회사가 흡수, 간접부문을 축소하고 있음
 - 후지쓰는 독일 PC제조회사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1,500명을 삭감하기 위한 노사교섭에 착수. 유럽 PC사업 관련 종업원의 10% 이상을 삭감한다는 방침
-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은 일본기업들도 유럽 사업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음
 - 공조기기 사업을 하고 있는 다이킨공업의 유럽지역 매출액은 2012년 4~12월 기간 중 전년 동기대비 12% 감소
 - 벨기에와 체코에서 현지생산하고 있어 엔저가 진행되더라도 출하 부진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임
 - 유럽의 카오디오시장에서 약 50%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JVC켄우드는 남유럽 외에 독일에서도 판매가 신통치 않아, 2월에 금년 경영실적 전망을 하향 수정

5 한국관련위치

□ 샤프, 삼성에 중소형 패널 공급

- 닛케이신문에 의하면, 샤프가 삼성전자에 에너지절약 성능이 우수한 최신 중소형 액정패널 이그조(IGJO)를 공급하여 이르면 금년 여름, 노트북 컴퓨터용으로 출하할 계획임
- 샤프는 금년 3월에 자본·업무 제휴한 삼성에 TV용 대형 패널을 공급하고 있는데, 중소형으로까지 제휴를 확대함으로써 주력공장인 카메야마 공장의 가동율을 향상할 수 있게 됨
- 공급대상은 삼성이 노트북에 탑재하는 11.6인치형 패널로, 카메야마에 있는 2개 공장 중 이그조(IGJO) 생산설비를 가진 제2공장에서 생산
 - 생산량은 단계적으로 늘릴 전망이며, 현재 60% 전후에 그치고 있는 동 공장의 가동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삼성은 유기EL에 경영자원을 집중하는 한편, 액정은 외부조달을 늘리고 있는데, 샤프의 신형 패널을 활용함으로써 PC의 상품력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샤프는 중소형 패널을 경영재건의 발판으로 하고 있는데 독자 개발한 이그조(IGJO)패널은 소비전력이 종래 액정패널보다도 80~90% 적고, 터치패널의 감도도 우수
 - 자사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에 탑재했으나, 타사 공급용은 미국 애플의 태블릿에 사용된 것 외에는 통합된 형태의 수주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샤프가 2013년 3월기까지 2기 연속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원인은 TV와 액정 패널사업의 부진 때문임
 - 경영실적 개선을 위해 우선 작년 7월 TV용 대형 패널의 사카이공장을 대만의 홍하이정밀공업과 공동운영
 - 금년 3월에는 삼성으로부터 3%의 출자로 대형패널을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시작